## 성서교회, 장로 및 권사 임직감사예배

### "교회의 두 기둥이 되는 임직자가 될 것" 다짐

서울북지방회 성서교회(정재호 목사) 임직감사예배가 6월 1일 오후 2시 30분에 거행됐다. 1부 예배는 사회 이병대 목사, 기도 진영복 목사, 성경봉독 노병호 목사, 지방회장 김정연 목사가 '성전 두 기둥 같은 임직자'(왕상 7:20~2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임직식은 담임 정재호 목사가 임직자 소개, 홍성진 목사의 기도 후에 지방회 목회자 안수위원(김낙중 김정연 차익성 이병대 김보현 이광구 문성호 정재호)의 안수, 담임목사의 임직 공포, 한양수 원로목사의 권면, 정부기 목사의 축사, 성서교회 장로회, 권사회의 축가와 임직패와 꽃다발 증정이 있었다.

임직자 대표로 김대현 장로는 답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큰 은혜임을 알아 전도하는 임직자,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의 두 기둥이 되는 임직자가 될 것"을 다짐하며, 김낙중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

▲장로:김기홍 김대현

▲권사:유현미 지민경.

서울북지방회주재기자 지용혁 목사

## 의왕성결교회, 장로장립 및 권사 임직감사예배

### "지역을 품고 복음화시키기 위해 충성 다할 것"

경기지방회 의왕성결교회(정혜연 목사)가 지난 6월 8일 오후 3시에 장로 장립 및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거행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의왕성결교회의 전신 이름은 통미교회이다. 하나님과 이웃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교회란 뜻으로 2010년 10월 16일 현 위치(의왕시 왕곡동)에 정혜연 목사에 의해 세워졌고, 2018년,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을 품는 의미를 가진 의왕성결교회로 변경되었다. 안으로는 예배와 말씀 중심, 일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도록 주력하고 있다. 또한 밖으로는 경로당을 찾아가 음악회, 관광을 주최하는 등 여러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을 섬겨왔다.

이날 1부 감사 예배는 의왕감찰장 김영국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장 유선태 목사가 '미래를 알고 있다'(계 22:12)라는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2부는 담임 정혜연 목사의 사회로 장로, 권사 임직식을, 3부는 지방회 부회장 한민기 목사의 사회로 권면 및 축사, 샌드아트 축하의 시간이 있었다.

이날 예식을 위해 박영수 김만수 유병철 박주연 이승남 이승용 서성권 유선태 김영국 한민기 정세홍 조명선 목사와 황제돈 한치성 장로가 순서를 맡아 수고했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

▲장로:이병욱 ▲권사:정금자 정금이.

경기지방회주재기자 기은정 목사

## 두란노교회,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 "새 일꾼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일 이루실 것 믿어"

서울서지방회 두란노교회(이상분 목사)가 지난 6월 15일 오후 4시 30분 지방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거행했다. 이번 창립 30주년 감사예배는 지난 30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교회가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며 감사와 함께 또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며 함께 교회를 위해 헌신할 22명의 임직자들을 세우는 시간들이 되었다.

두란노교회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5년 5월 27일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지하 교회에서 이상분 목사와 구성남 사모, 두 사람의 예배로 시작되었다. 신혼여행 대신 기도원에서의 21일 금식기도를 택한 이상분 목사와 구성남 사모의 순종과 헌신은, 지역사회를 품고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두란노교회는 매일 전도와 기도를 통해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목회철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여 1997년 방화동 예배당으로의 이전과 2019년 김포 운양동에 새로이 예배당으로 건축하며 한 교회 두 개의 예배당 시대를 이어가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현재는 두 예배당을 합쳐서 청장년부가 1,000명 넘게 출석하며, 교회학교가 540명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이상분 목사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교회 사역의 첫 번째 순위"임을 강조하며, 교회의 대표적 교육프로그램인 어.특.새(어린이 특별새벽기도회)와 꿈.먹.살(꿈을 먹고 살지요)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신앙교육 강화와 오케스트라, 아기 학교, 백영관 대학, 어린이 응급돌봄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며 다가가는 등 다양한 교육 ·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와 연계하여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용, 언어, 실무 역량을 갖춘 사역자들을 양성 중이며, 여름 섬김 사역, 교단 및 성결대학교 발전기금 후원 등 교단의 발전과 사회적 나눔들도 지속하고 있다. 이상분 목사는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자 본질"이라며,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아우르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30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제6차 임직식을 맞이하며, 이상분 목사는 "지난 교회의 30년간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가능했고,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1부 감사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손항모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지방회장 이상복 목사가 '그리스도인의 자리'(눅 14:7-11)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이어 2부와 3부에는 담임 이상분 목사의 사회로 장로 장립 및 명예권사 추대 · 권사 취임식이 있었다. 3부 축하의 시간에는 전 지방회장 이종이 목사가 권면을, 전 지방회장 고신원 목사가 축사를 담당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다음은 추대 및 임직자 명단.

▲장로장립:이택근 방성자 ▲명예권사 추대:강진순 김희진 이묘악

▲권사취임:구호경 김명희 김수정 김은진 김재희 남은희 남혜영 방경은 송옥영 안미화 오승희 이리브가 이미란 이현희 조문희 조정순 최수현.

서울서지방회주재기자 김현기 목사

## 서정교회, 성역 45주년 감사예배 및 원로목사 추대식

### 왕영신 목사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

경기남지방회 서정교회가 지난 5월 25일(주일) 오후 4시 왕영신 목사의 성역 45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 및 원로목사 추대식을 은혜 가운데 드렸다.

이날 예배는 오랜 세월 복음 사역에 헌신해온 왕영신 목사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왕영신 목사는 절반이 넘는 생애를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양의 길을 걸어왔으며, 사모와 함께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와 교단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예배는 경기남지방회 임원들과 송탄감찰회 목회자들, 교계 인사 및 성도들이 함께 자리하여 왕영신 목사의 사역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지방회에서는 공로를 기리는 추대패를, 송탄감찰회에서는 축하금을 전달하였으며, 교회 성도들은 정성 어린 선물과 꽃다발로 감사를 표했다.

왕영신 목사는 "4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고, 평생 동역자로 함께해 준 사모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하였으며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했다.

예배 후 진행된 추대식은 감사와 감동 속에 마무리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왕영신 목사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을 함께 기억하며 귀한 믿음의 유산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남지방회주재기자 박주덕 목사

## 하민교회,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식

### 목회자와 성도간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길

고양지방회 하민교회(박장영 목사)가 지난 6월 1일(주일) 감격스러운 임직식을 거행했다.

이날 세워진 구찬모 안수집사와 박선영 권사는 부부이다. 창립 이래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충성과 신실함으로 교회를 섬겨온 공로를 인정받아 직분을 받았다. 벌써 주었어야 할 직분을 교회가 너무 작은 까닭에 늦은 임직식을 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껏 베어난 담임목사의 눈물의 임직자 소개가 있었다. 설교, 축사, 권면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임직자들에게는 격려가 되었다.

특별히 가족들의 축하 시간에는 미국에 유학 중이었던 남매가 부모님의 임직식을 위해 외국 친구까지 초청하여 축하하는 모습과 어머님이 꽃다발 대신 두 사람에게 금일봉을 쥐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축도를 맡은 백병도 목사(증경총회장)의 첨언이 그날 임직식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 준듯하다. "내가 이때까지 수많은 행사를 참여했었지만, 담임목사가 임직식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임직자들을 소개한 것을 처음 봅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 교회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지방회주재기자 김수진 목사